

문화특집

정읍시립도서관 인문학 참여단
경남 합천 영상파크 탐방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하 시립중앙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참여단이 오는 18일 경남 합천 탐방에 나선다. 이번 탐방은 시립중앙도서관이 인문정신문화를 진흥시키고 독서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탐방에는 지난 4일 개강한 '길 위의 인문학' 강좌를 수강한 학부모와 자녀(2인 1가족) 40여 명이 참여한다.

참여단은 오전 8시에 출발 합천 영상테마파크를 둘러보고 합안에 들러 정어창 고택을 방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탐방은 영화 관련 인문학 강연 강사로 활동한 신귀백(영화평론가)씨가 직접 탐방지를 선정한다. 현장 안내도 맡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한다.

합천 영상테마파크는 192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를 배경으로 하는 국내 최고의 시대물 오픈 세트장으로, 드라마 '각시탈' 외에도 '합살', '태극기 휘날리며' 등 190편의 영화와 드라마, 광고 등 각종 영상작품이 촬영된 세트장이다. 또 조선시대 대표작인 성리학적 정어창의 고택은 영화 '해어화'의 촬영지기도 하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올해 '길 위의 인문학' 테마를 영화와 미술로 정하고, 테마별로 각각 강좌 2회와 현장탐방 1회 후속모임 1회로 진행하고 있다. 이달 영화에 이어 7월부터 시작되는 미술분야 인문학 강좌에서는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이 강사로 나서 미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나누고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삼성 리움미술관을 탐방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63.539-64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보안협력위원장 이·취임식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 15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강현신 경찰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과 30여 명이 보안협력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현신서장은 제2대 보안협력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우식 위원장에게 축하하고 집안 봉만기 위원장에게는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는 뜻에서 감사패와 지방청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최우식 선임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경찰서 보안업무 자문과 민경 협력 차이에 보안협력위원회가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현신 서장은 "최우식 선임위원장께서 협력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축사에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 스파힐스 컨트리 클럽

김제 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김제스파힐스 컨트리클럽(대표이사 정대영)은 15일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에 써 달라며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건설)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하였다. 김제스파힐스 컨트리클럽(엠카운티 스파힐스 컨트리클럽)은 김제시 흥사동에 조성된 김제지역 유일의 18홀 대중제 골프장으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정대영 대표이사는 김제시청을 방문 이건설 이사장에게 "김제의 많은 청소년들이 장래 꿈을 위해 경제적 격정 없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기탁하였다"고 말했다.

이건설 김제시장은 "이 장학기금은 김제의 희망을 열어가는 장학사업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김제시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100여일 앞으로 다가 온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김제시 벽골제 일원)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전통 농경문화 콘텐츠를 보여줄 예정이다

지평선축제 체류형 한국전통체험으로

김제시, 농촌에서 하루·지평선팜스테이·금산사 템플스테이 등 프로그램 마련

김제시(시장 이건설)는 100여일 앞으로 다가 온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김제시 벽골제 일원)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전통 농경문화 콘텐츠를 체험과 볼거리를 접목하여 세계 속의 한국을 드러낼 수 있는 체류형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첫 번째로 최근 추세인 농업농촌 체험과 자연막거리가 풍성한 '황금들판에서의 마실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에서 하루'를 운영한다.

2014년 4개소에서 시작한 본 프로그램은 금년에는 맛조이 농가 등을 추가하여 총 17개소를 운영하게 되며 지평선축제 기간을 이용하여 당일 또는 1박2일로 가족단위 여행으로 적격이다.

두 번째로 지평선축제 기간에 황금물결이 넘실대는 김제평야의 전원 풍경을 직접 느끼고 싶다면 「지평선팜스테이」를 체험해 보는 것도 후회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축제기간에 유독 부족한 김제의 숙박시설을 감안할 때 김제지역에서 시설상태가 양호한 마을회관 38개소를 활용, 마을대표 및 공무원과 연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박 기준 50천원에 취사가 가능하며, 1개소당 5~1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금산사 템플스테이」는 1,400년 미륵신앙의 성지인 금산사에서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 체험과 자기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 이들에게는 가장 내실있는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지평선축제 기간 중 1박2일의 일정으로 총 3회(9. 29 ~ 9. 30/9. 30 ~ 10. 1/10. 1 ~ 10. 2) 운영할 계획이다.

이건설 김제시장은 "이번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 최초 4년 연속 대표축제의 위상에 걸맞는 지역 문화자원과 자연친화형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처럼 가장 한국적인 체류형 시리즈를 선보여 전국 및 해외 관광객에게도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평선축제가 지속가능한 축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블랙망고수박’으로 무더위 나세요

부안새영농조합 같은 수박, 속은 망고처럼 노란 블랙망고수박이 여름더위를 날리는 이색 먹거리로 소비자들에게 사로잡고 있다.

부안유봉새영농조합은 올해 부안 등 약 27ha 면적의 계약재배를 통해 약 760톤의 블랙망고수박을 수확할 예정이며 대형마트 '이마트'를 통해 전량 판매할 계획이다.

이달 말 출하 예정인 블랙망고수박은 1통(3kg)에 7000~9000원으로 판매될 예정으로 약 19억 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블랙망고수박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작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시판 중인 소과종 수박 중 최고의 당도(12.0~13.6도)를 보이고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육질이 아삭 아삭하고 섬유질이 적으면서도 그 맛이 아주 뛰어나며 겉과는 달리 속은 진노랑색으로 냉장고에서 3~5일의 숙성과정을 거치면 더욱 맛있는 특화수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이색수박이 있더라도 등장했지만 기존 수박에 비해 가격이 높고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만한 맛과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아 곧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

서 "부안군은 블랙망고수박을 줄포 수박에 이어 2종의 소득작물로 육성할 계획으로 생산자·유봉업체와 손을 잡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중국 기업 김제시 투자 유치 위한 현지 설명회 개최

김제시의 산업부(김제자유무역지역 관리원)는 중국 기업의 김제시 투자 유치를 위한 현지 IR을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중국 제조기반 현지기업들에게 지평선산업단지 및 김제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입지적 요건과 투자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13일 중국 천진에서 한국 진출 관심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

를 개최하였으며 그중 2개 기업이 현장에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스테인레스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12개 회사와 800여명의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공업용 스테인레스를 제조하는 합자회사로 중국내 대표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2차 설명회는 15일 청도에서 개최되며 역시 한국 진출 관심 기업 20여개사가 참여한다. 이날은 이미 김제시 투자를 위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교부

부안군은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5087건, 16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부안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1년 세액을 연납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으며 지난 2일부터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 이전 차량은 내달 수시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특히 제2기분(7월1일~12월31일)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미리 신청해 납부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생기시장과 정읍시의회 김승범의원, 김재오의원 그리고 대한고속 관계자 및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행에 따른 개통식이 진행됐다.

정읍산외면 원정마을 시내버스 운행 시작

지난 13일부터 신외면 원정마을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해 주민들의 나들이가 훨씬 수월해졌다.

시에 따르면 원정마을은 지금까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700m가량 떨어진 도원 승강장까지 걸어가야 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이장 및 주민들의 시내버스 개통을 정읍시에 건의했다.

이에 시와 (주)대한고속 관계자는 지난 5월 19일 현지방문 확인 및 운행 시간 조정 등 운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한 끝에 운행에 최종 결정했다.

시는 "이번 시내버스 개통으로 마을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후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수단

으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통 당일 마을에서는 김생기시장과 정읍시의회 김승범의원, 김재오의원 그리고 대한고속 관계자 및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행에 따른 개통식이 진행됐다.

개통식에서 김시장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 실현과 운수종사자들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정읍시브랜드인 내장산콜택시, 복지택시, 봉학택시, 업무용택시 등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를 꾀하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에 따르면 외래어종인 큰입배스는 정읍지역 주요 저수지와 하천 내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고, 파랑불우렁 또한 주요 저수지등에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읍시,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 퇴치나서

정읍시가 뛰어난 포식성과 번식력 등으로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생물 퇴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생물의 다양성 감소가 속화 요인 중 하나인 외래생물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퇴치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외래어종인 큰입배스는 정읍지역 주요 저수지와 하천 내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고, 파랑불우렁(블루길) 또한 주요 저수지등에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외래식물인 양미역취와 가시박, 돼지풀 등이 정읍천과 고부천, 칠보천, 덕천천, 민석보 등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외래 생물에 대한 대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퇴치사업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으로 외래어종의 신라시기에 맞춰 지난 4월25일부터 6월 7일까지 수매사업(1천320kg 수매, 보상금 660만원)을 추진했다.

시는 이어 하반기(8월~10월)에는 외래식물 퇴치사업에 나서 양미역취와 가시박, 돼지풀 등의 주요 서식지 중 대량의 외래식물 서식지에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퇴치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올해부터 원천적 퇴치를 목표로 지속적인 퇴치사업을 실시하여 정읍의 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함께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물론 질병감염 알레르기 질환 등 인체에 피해를 주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